

“창원 하천 오염원 80% 이상 개선 완료”

창원하천 오염원 모니터링 보고회

오수 유입지점 4년간 97개 감소

회원천 등 하천 84곳 수질 좋아져

기사입력 : 2021-11-09 21:48:28

마산만으로 흘러드는 하천 오수 유입지점이 최근 4년간 97개가 줄어드는 등 육상오염원 차단으로 잘피 서식 등 마산만이 살아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창원시는 9일 시청 시민홀에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와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으로 유입되는 창원하천의 오염원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9일 오후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2021년 마산만 유입하천 오염원조사 최종보고회가 열리고 있다./성승건 기자/

2021년 마산만 유입하천 오염원 모니터링 조사는 지난 3~6월 경남생명의 숲,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창원YMCA, 창원YWCA,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창원지역 8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으로 유입되는 40개 하천을 직접 걸어 다니며 육안으로 오염원 지점을 확인했다.

하천 오수 유입지점 조사 결과, 2018년 323개, 2019년 362개, 2020년 237개 지점에 이르렀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1개소가 감소한 206개의 오수유입지점을 확인해 해를 거듭할수록 오수 유입지점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회원천, 교방천, 하남천, 신이천, 자은천 등에서 84곳의 오수유입이 차단돼 하천 수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의 우수관을 통한 세탁 오수의 유입은 지속적인 시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마산합포구, 진해구 하천 복개 구간의 오수차단과 오래된 우수토실 관리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됐다.

창원시는 "하천 오염원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하천 오수 유입과 발빠른 불명수 차단으로 오수유입 지점의 80% 이상을 개선 완료했다"면서 "육상 오염원이 효과적으로 차단됨으로써 지난해 마산 내만에서 사라졌던 잘피의 대규모 서식처를 확인했고, 올해 초에는 저어새 한 쌍이 봉암갯벌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창원 남천에는 멸종위기 해양생물인 붉은발말뚱게가 서식하는 등 하천과 바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현근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이현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출처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63104>